



# 2007 Fund Watch

##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



**Useful & Reliable Fund Services.**

Knowledge-based Financial Solutions  
Fair Performance Evaluation.  
Reliable Investment Information

1. 금융시장 동향
2. 펀드 수탁고 동향
3. 국내투자 주식펀드/채권펀드 운용 성과
4. 해외투자 펀드 운용 성과
6. Report – 성과 지속성 (Performance Consistency)

**KFR** 주식시장 동향

**KOSPI지수 21.55% 상승**  
**세계증시 중에서도**  
**한국증시의 돋보이는 상승세**

한국의 상반기 주식시장은 해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선진국 증시 진입을 위한 역사적인 도약을 하였다. 글로벌증시 상승과 동조한 국내증시는 1500선 돌파 이후 1800선까지 2분기에만 무려 300포인트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며 확실한 재평가를 받았다. 연초 차이나쇼크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우려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혼조세를 보였지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1350p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대세 상승을 이끌어냈다.

최대의 이슈였던 한미FTA체결과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는 한국증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출은 조선, 철강 등에 힘입어 14.7% 증가율을 기록했고, 내수경기도 회복조짐을 보이며 투자심리가 높아졌다. 6월 들어 미국채 금리 인상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KOSPI지수가 20일 이평선까지 하락하였지만, 2분기 기업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한국증시의 저평가 인식속에 유동성을 토대로 조정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고객예탁금은 연초대비 6조 늘어난 15조원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신용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 힘이 컸다. 자통법 통과와 M&A이슈로 인해 금융업종 시가총액은 연초대비 30조이상 늘어난 170조를 기록하며 연초대비 2조이상 감소한 전기전자업종의 시가총액 154조원을 앞질렀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져 KOSPI 소형주는 연초대비 39.81%, KOSDAQ 소형주는 38.22% 상승하며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KOSPI 대형주는 19.21% 상승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67.73%, 운수장비 65.41%, 운수창고 55.07%, 증권 48.99%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고, 은행 8.29%와 전기전자 1.17%는 저조했다. 통신업은 -3.87%로 유일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KOSPI지수는 연초대비 309.14p(21.55%)상승한 1743.60p, KOSDAQ지수는 172.54p(28.46%) 상승한 172.54p를 기록했다.

증시 추이와 주요 지표



주요지표	지수	기간별 증감율				
		'07 상반기	'07 상반기	'07 1분기	'07 2분기	1년
KRX100	3,530.94	19.49%	2.47%	16.61%	31.39%	
KOSPI	1,743.60	21.55%	1.26%	20.04%	34.63%	
KOSPI200	221.31	19.38%	1.19%	17.97%	32.16%	
KOSDAQ	778.69	28.46%	7.07%	19.98%	31.83%	
KOSDAQ STAR	1,625.96	25.28%	3.00%	21.63%	32.14%	
대형주(KSE)	1,674.90	19.21%	1.25%	17.73%	30.79%	
중형주(KSE)	2,271.29	36.22%	-0.61%	37.06%	63.68%	
소형주(KSE)	1,362.31	39.81%	8.00%	29.46%	55.45%	

**KFR** 채권시장 동향

**1/4분기 금리하락  
그러나 예상보다 빨랐던 금리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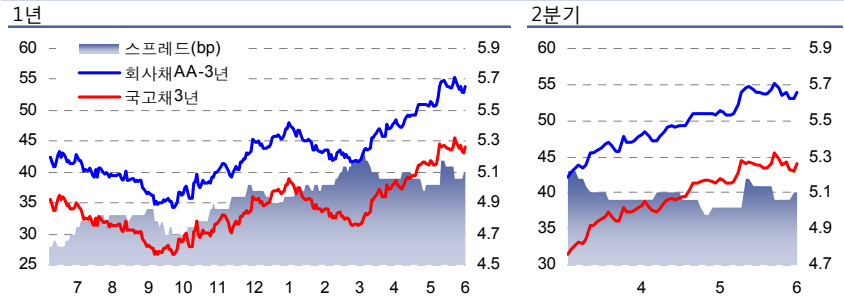
2007년 상반기 채권시장은 전강/후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초에는 국내의 경기 회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되면서 외국인의 대량 금리 선물 매수가 유입되었다. 중국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현상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회수 우려도 1/4분기 채권시장의 강세에 한 몫을 했다. 단기자금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단기 금리가 경직된 상태에서 중장기 금리가 내려 앉아 수익률곡선의 플래트닝이 진행되었고, 3월말까지 일부 만기물 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책당국도 경기 회복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유동성 억제정책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꾸준히 금리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던 외국인의 이탈과 단기외화차입규제가 채권 시장의 수급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4월부터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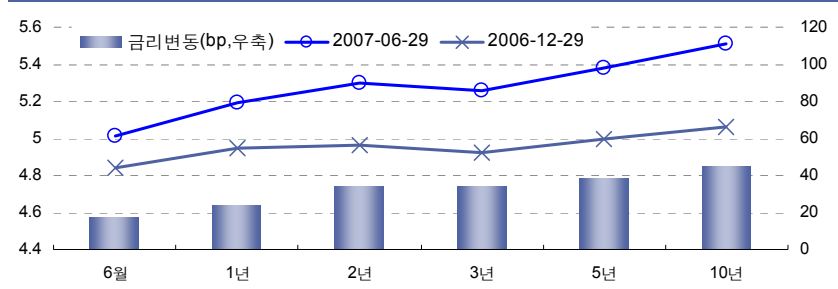
2/4분기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금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초강세장과 맞물리면서 상승세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금통위는 10개월 연속 콜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연하게 여겨지던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 한 것도 금리 상승의 한 요인이 되었다.

한동안 역전상태에 있던 수익률 곡선은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1/4분기 동안 16bp 떨어지면서 4.76%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전반기 말에는 5.26%로 올라 연초대비 34bp 상승했으며, 회사채 AA- 3년 금리도 37bp오른 5.66%를 기록했다.

채권금리 추이와 주요 금리



국고채 금리 기간구조 변화



지수	'07 상반기	'07 상반기	'07 1분기	'07 2분기	1년
국고채 3년	5.26	34	-16	50	34
회사채 AA- 3년	5.66	37	-10	47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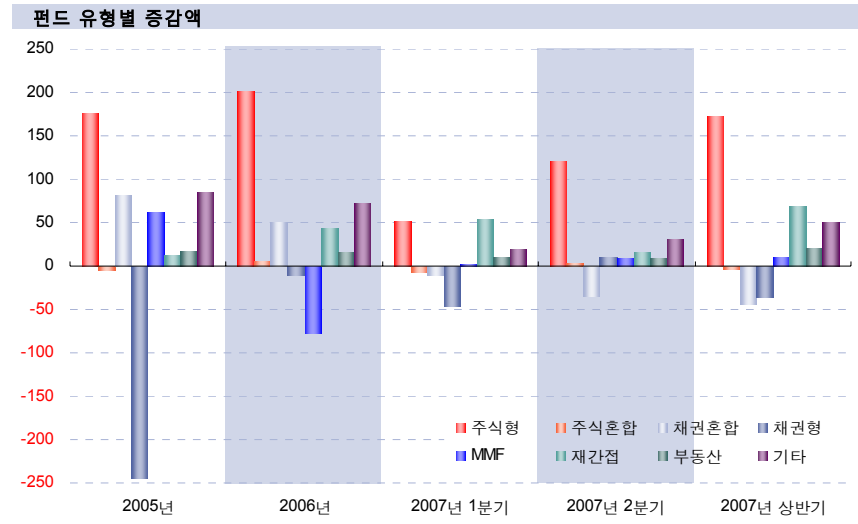
\* 단위 : %, bp

**KFR 펀드 수탁고 동향**

**국내 주식펀드 증가에 힘입어  
펀드 수탁고 견조한 증가**

자산운용협회가 발표하는 자산운용사의 상반기 펀드 총 수탁고는 257조 7,911억원(PEF제외)로 지난해 말 대비 23조 6,732조 증가했으며, 2005년 말 보다 53조 8,568억원 증가했다. 펀드 수탁고 증가율은 월 평균 1.34%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월간단위로 네 번만 감소하고 계속 증가했다. 더구나 국내증시가 상승가도를 달린 5월 6월에만 21조원 2천억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수탁고 증가의 89.6%가 지난 두 달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펀드 수탁고의 급속한 증가는 주식펀드의 공이 크다. 주식펀드 수탁고는 지난해 말 대비 17조 증가한 63조 5,546억원을 기록했으며, 34.6% 성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 13조 7,441억원보다 크며, 이미 지난해 주식펀드 총 증가액 20조 2,158억원의 85%를 올해 상반기에 돌파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펀드의 비중도 증가해서 2006년 말에는 19.8%였다가 올 상반기 말에는 24.7%를 기록했다.



\* 단위: 천억원

반면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펀드와 MMF의 수탁고는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주식펀드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상반기 채권펀드 수탁고는 46조 7,129억원으로 연초대비 3조 7,026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동안 1조 163억원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반기의 감소폭은 상당한 것이지만, 기관자금의 자산배분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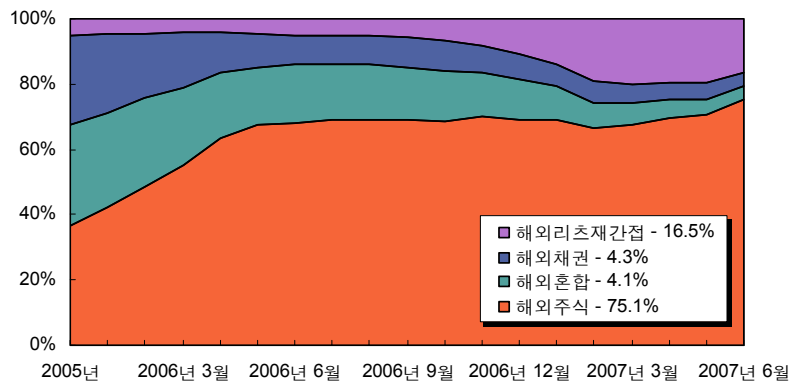
MMF는 상반기 동안 1조 620억원이 증가한 58조 2,149억원을 기록했지만 2006년 연초와 비교하면 6조 6,310억원이 감소했다. 2006년 하반기에 크게 감소하는 듯했지만 연말에 다시 5조 7천억원 증가하여 현수준의 수탁고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 눈에 띄는 유형은 재간접 펀드이다. 상반기 재간접 펀드 수탁고는 14조 5,492억원으로 연초대비 6조 8,872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증가액 4조 3,131억원보다 많다. 재간접유형의 펀드는 대부분 해외투자펀드며 그 중에서도 해외리츠재간접 펀드가 41.8%(6조 831억원)를 차지한다. 상반기 재간접펀드 수탁고 증가액의 65.8%인 4조 5,335억원이

해외리츠 재간접 펀드에서 증가한 것이다. 2/4분기 들어 부진한 성과에 수탁고 증가세가 많이 둔화 되고 6월 들어서 5천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상반기 해외리츠 재간접 펀드의 인기는 상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반기 해외투자 총액은 연초대비 22조 3천억원 증가한 36조 9천억원으로 현재 국내 해외투자자의 60.4%가 상반기에 이루어졌다. 상반기 해외투자 증가액만 지난해 해외투자 증가규모 9조 7,623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는 해외주식펀드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연초이후 17조 6,015억원 증가한 27조 7,060억원(FOF포함)을 기록하여 전체 해외투자 규모의 75.1%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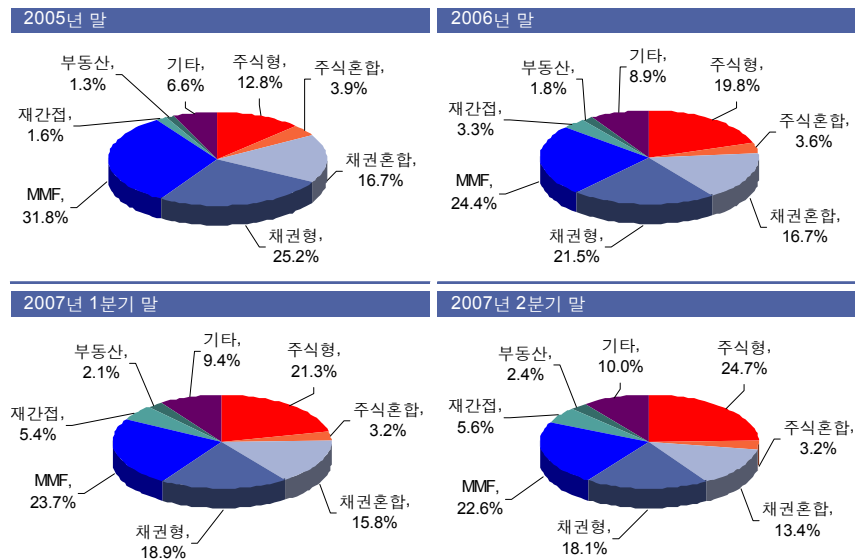
해외투자 유형 비중 추이와 2007년 상반기 비중



\* 국내운용 해외투자펀드 전체.

해외투자지역별로는 리츠재간접 펀드를 제외하고 글로벌 지역 투자가 16.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 아시아, 일본, 유럽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4분기에는 일본과 유럽의 수탁고 증가 속도가 빨랐으나, 2/4분기에는 주춤한 모습이며, 글로벌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의 투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남미, 동유럽 등 새로운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선보이면서 해외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수탁고의 증가세는 눈에 띄지 않는다.



**KFR 운용사 수탁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수탁고 1위**

운용사별 수탁고 현황을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 수탁 규모에 있어서 부동의 1위였던 삼성투신운용을 넘어 최고 수탁고를 자랑하는 운용사로 올라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총수탁고 중 주식펀드가 76.4%의 비중을 차지하는 19조 830억원으로 국내 운용사들의 주식펀드 수탁고 전체의 1/3에 달하며, 채권펀드 8.7%, MMF가 5.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삼성투신운용은 주식펀드가 운용사 총수탁고의 21.2%인 4조 6,345억 원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MMF로 29.9%를 차지하는 6조 5,450억 원이다. 그리고 재간접 펀드의 비중이 15.4%, 수탁고가 3조 3,677억 원으로 다른 운용사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운용사별 수탁고 추이**

운용사	2004		2005		2006		2007상반기	
	수탁고	순위	수탁고	순위	수탁고	순위	수탁고	순위
미래에셋(자)	13,016	30	47,940	13	201,594	2	249,750	1
삼성	222,262	1	208,317	1	214,285	1	218,741	2
대한	215,688	2	201,662	2	196,900	3	191,380	3
우리CS	63,388	8	129,623	4	165,500	5	155,057	4
한국운용	205,777	3	190,303	3	168,434	4	154,428	5
KB	158,322	4	120,065	5	140,826	6	135,042	6
SH	64,380	7	77,875	10	110,414	7	117,955	7
신한BNPP	60,714	10	73,528	11	85,112	8	111,610	8
푸르덴셜	125,300	5	88,804	7	84,328	9	85,919	9
농협CA	60,896	9	60,458	12	62,109	13	80,642	10
CJ	70,333	6	92,085	6	83,221	10	80,427	11
맥쿼리-IMM	25,487	20	30,061	22	38,025	18	65,846	12
동양	24,165	22	29,380	23	63,067	11	64,897	13
한화	27,197	19	41,104	16	48,569	15	63,773	14
PCA	27,208	18	42,673	14	57,633	14	60,249	15
랜드마크	37,500	15	87,262	8	62,620	12	55,466	16
기은SG	-	-	30,105	21	44,385	17	54,872	17
KTB	17,221	26	31,106	20	35,152	20	45,946	18
서울	41,572	13	42,358	15	37,351	19	45,758	19
산은	15,070	27	37,978	17	48,488	16	45,694	20

\*단위 : 억원.(PEF제외)

**리츠재간접, 유럽 펀드 증가가 운용사 수탁고 증가에 한 몫**

상반기 동안 수탁고 증가가 많았던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맥쿼리IMM, 신한BNPP, 슈로더 등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대규모를 자랑하는 대표 펀드들의 재투자 및 아시아 투자 해외펀드의 수탁고가 크게 증가했으며, 맥쿼리IMM과 한화는 해외리츠 재간접 펀드의 수탁고 증가, 신한BNPP는 중국과 유럽투자 펀드 수탁고 증가, 슈로더투신운용의 경우는 유럽 및 브릭스투자 펀드의 수탁고가 급증하면서 수탁고 증가 상위권에 올랐다.

**상반기 수탁고 증가 상위 운용사 10**

운용사	2006년 말			2007년 상반기			수탁고증감
	수탁고	점유비중	순위	수탁고	점유비중	순위	
미래에셋(자)	201,594	8.6%	2	249,750	9.7%	1	48,156
맥쿼리-IMM	38,025	1.6%	18	65,846	2.6%	12	27,821
신한BNPP	85,112	3.6%	8	111,610	4.3%	8	26,498
슈로더	15,567	0.7%	35	36,957	1.4%	21	21,390
농협CA	62,109	2.7%	13	80,642	3.1%	10	18,533
한화	48,569	2.1%	15	63,773	2.5%	14	15,204
미래에셋(맵)	19,501	0.8%	27	32,420	1.3%	24	12,919
템플턴	15,754	0.7%	34	28,142	1.1%	25	12,388
교보	24,022	1.0%	24	35,207	1.4%	22	11,185
KTB	35,152	1.5%	20	45,946	1.8%	18	10,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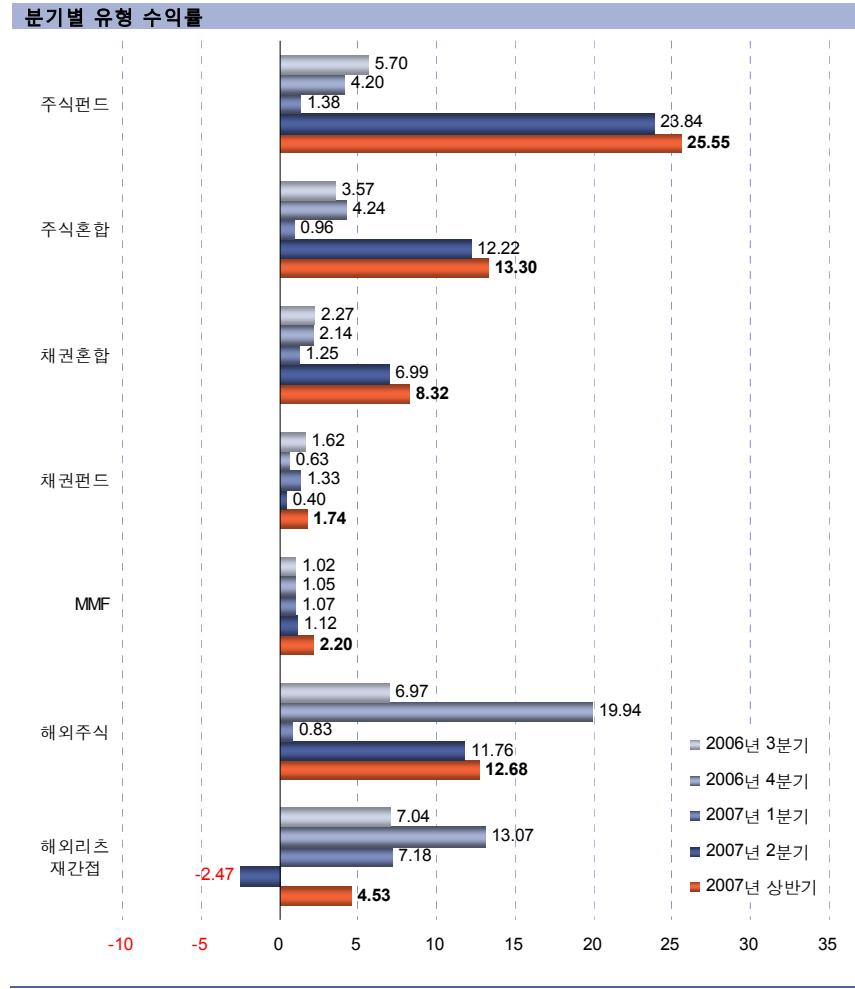
\*단위 : 억원.(PEF제외)

KFR 펀드 유형별 운용성과

국내주식펀드의 독주  
해외주식펀드도 양호한 성과.

2007년 상반기 펀드 시장의 최대 화두는 국내주식펀드의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2006년 1년간 단 1.6%의 수익률에 그쳐 국내 투자자들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던 국내 주식펀드는 올 상반기에만 25.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4분기 동안에는 1.38%의 수익률에 머물러 국내 주식펀드 수탁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2/4분기에만 23.84% 수익률을 올리며 부진을 만회했다. 이는 주식펀드가 1년간 62.35%의 성과를 올린 2005년 상반기 수익률 15.07%보다도 높다. 역사적인 증시의 고성장에 힘입어 주식펀드가 덩달아 고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분기별로 보면 성과의 변동이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이런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보다는 자산의 재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주식혼합 펀드와 채권혼합 펀드도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4개 분기중 2007년 2/4분기 성과가 월등히 높아, 증시의 영향이 혼합펀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혼합펀드는 상반기 동안 13.3%, 채권혼합펀드는 8.32%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 동안에는 각각 12.22%, 6.99%를 기록했다. 2/4분기 채권시장의 약세가 혼합펀드들에게 독이 되었지만 국내 증시의 고성장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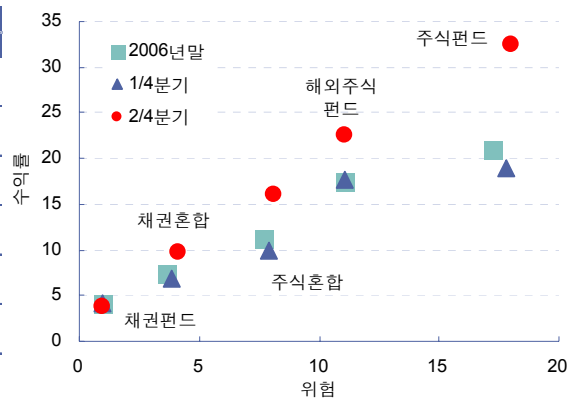


채권펀드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1/4분기만 하더라도 1.33%(연 5.41%)의 성과를 올리면서 무난한 한 해를 보내는 듯 했으나, 2/4분기 들어 금리 급등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0.33%(연1.6%)의 수익률에 머물고 말았다. 중장기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1/4분기 동안 채권펀드를 웃게 했지만, 채권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인 중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이 채권펀드 운용을 힘겹게 만든 결과이다.

해외주식펀드의 성과는 지난해 말까지 국내 주식펀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올 해 1/4분기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2/4분기에도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반기 전체로는 국내 주식펀드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으며 12.68%를 기록했다. 해외리츠 재간접 펀드 또한 올해 초까지 높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2/4분기에는 -2.47%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를 4.53%로 마감했다.

펀드 유형별 위험-수익률 분포

펀드유형	2006년 말		1/4분기 말		2/4분기 말	
	수익률	위험	수익률	위험	수익률	위험
주식펀드	76.93	4.99	68.00	5.14	132.92	5.20
연율	20.95	17.28	18.88	17.79	32.56	18.01
주식혼합펀드	37.21	2.23	32.53	2.29	56.34	2.35
연율	11.12	7.72	9.84	7.92	16.06	8.14
채권혼합펀드	23.64	1.04	22.04	1.10	31.99	1.19
연율	7.33	3.62	6.87	3.81	9.69	4.11
채권펀드	12.93	0.28	12.69	0.28	11.73	0.28
연율	4.14	0.97	4.06	0.96	3.76	0.98
해외주식펀드	62.54	3.18	62.83	3.19	84.19	3.18
연율	17.58	11.03	17.65	11.04	22.58	11.03
해외채권펀드	14.95	0.90	15.11	0.92	16.80	0.90
연율	4.75	3.11	4.80	3.18	5.31	3.13
MMF	11.24	0.03	11.40	0.04	11.65	0.04
연율	3.62	0.12	3.66	0.13	3.74	0.15



\* 3년 월간 수익률과 월간 표준편차의 기준. 수익률의 연환산은 기간수익률의 기하평균값. 단위 : %

유형별 위험-수익률 분포를 보면 2/4분기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인해 큰 변동성의 변화 없이 수익률 상승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펀드의 경우 위험의 변화가 제한된 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반기 동안 주식시장이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증시조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펀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펀드 유형별 기간 수익률

펀드유형	실정액	펀드수	1분기	2분기	상반기	1년	2년	3년
주식펀드	330,627	389	1.38	23.84	25.55	38.29	79.96	132.92
주식액티브펀드	309,091	315	1.45	24.55	26.36	38.98	80.55	133.96
주식인덱스펀드	21,536	74	0.96	16.24	17.35	30.86	74.08	120.30
주식혼합펀드	12,083	43	0.96	12.22	13.30	22.32	37.86	56.34
채권혼합펀드	32,164	116	1.25	6.99	8.32	13.14	22.94	31.99
채권펀드	37,045	69	1.33	0.40	1.74	4.04	7.64	11.73
채권단중기펀드	29,897	51	1.35	0.33	1.68	4.01	7.61	11.49
채권장기펀드	7,148	18	1.25	0.72	1.98	4.13	7.74	12.31
MMF	567,210	128	1.07	1.12	2.20	4.33	8.09	11.65
해외주식펀드	268,993	380	0.83	11.76	12.68	44.58	73.39	84.19
해외혼합펀드	8,800	28	1.51	5.85	7.45	19.66	24.86	27.10
해외채권펀드	8,240	25	1.32	0.07	1.38	9.34	9.32	16.80
해외리츠재간접펀드	59,897	38	7.18	-2.47	4.53	26.51	36.19	

\* 단위 : 억원, 개, %  
\* 공모펀드만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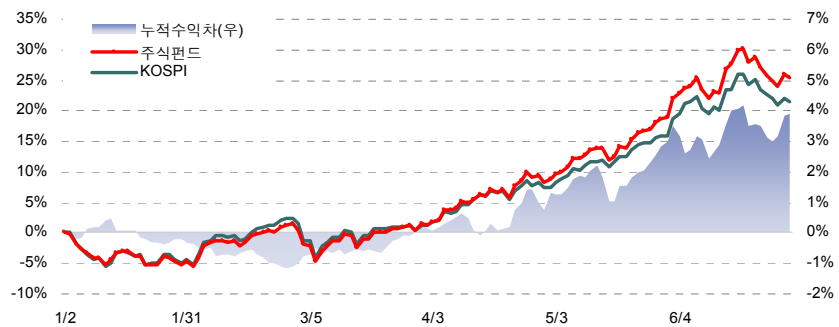


**KFR** 주식펀드 운용성과

**연초이후 계속된 중소형주 펀드 강세와 일부 그룹주 펀드의 약진**

주식펀드 수익률 상반기 성과는 중소형주펀드, 배당주 등 가치주 비중이 높은 펀드, 금융업종 비중이 높은 펀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중소형가치주 펀드의 성과는 연초 지지부진했던 장세에서도 하락에 민감하지 않고, 동일유형 대비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산업재 및 내수관련 종목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의 성과가 우수하였다.

**KOSPI와 주식펀드 수익률 스프레드**



상반기 계속된 중소형가치주 랠리로 '미래에셋3억만들기중소형주식1(ClassA)',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1', '동양중소형고배당주식1', '유리스몰뷰티주식C' 펀드가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1' 펀드는 연초대비 수탁고가 2배 이상 늘어 6,17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수익률 1위를 기록한 동부자산운용의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주식1ClassC1' 펀드는 중소형주 편입비중이 30%이상이며 가치주 비중이 높다. 또한,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POSCO 등의 시장주도주 편입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동부THE CLASSIC주식1ClassC1' 펀드는 진주찾기 주식펀드와는 달리 동일유형처럼 시가총액에 비례하여 업종별 종목이 구성된 펀드이다.

2분기 들어 KOSPI지수와 주식펀드와의 수익률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이에 따라 일부 성장주 펀드들의 반등세가 이어졌다. '미래에셋플래티늄랩주식1'은 대형성장펀드로서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등 운수장비 비중이 매우 높다.

**주식펀드 상반기 수익률 상위 펀드 20**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분기	2분기	상반기	1년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주식1ClassC1	동부	06-07-21	37	8.37	37.41	48.92	
미래에셋3억만들기중소형주식1(ClassA)	미래에셋(자)	05-01-26	724	2.93	39.81	43.91	55.84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1	한국밸류	06-04-18	6,178	4.85	34.63	41.16	62.06
신영고배당주식(W형)	신영	05-11-30	1	11.82	25.80	40.67	60.27
삼성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종류형1A클래스	삼성	07-01-02	2,570	8.32	28.89	39.61	
동양중소형고배당주식1	동양	05-03-08	588	8.43	28.29	39.11	72.37
삼성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종류형1C클래스	삼성	07-01-02	1,004	8.09	28.60	39.00	
삼성배당주장기주식1	삼성	05-05-10	428	4.87	31.40	37.80	51.94
한국부자아빠핵심주도주식증권W-1	한국운용	05-01-19	65	3.99	31.92	37.19	39.63
미래에셋드림타겟주식형	미래에셋(자)	03-11-03	385	4.52	29.68	35.54	52.96
동부THECLASSIC주식1ClassC1	동부	05-11-17	125	3.61	30.68	35.40	51.82
미래에셋플래티늄랩주식1	미래에셋(자)	04-10-18	760	1.67	33.12	35.35	50.26
우리SK그룹우량주플러스주식1-A1	우리CS	06-12-21	36	3.70	30.48	35.30	
세이가치형주식(종류형)A1	SE에셋	06-10-17	1,845	2.48	31.96	35.24	
우리SK그룹우량주플러스주식1-C1	우리CS	06-12-21	72	3.50	30.18	34.73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미래에셋(자)	01-07-06	9,463	2.98	30.60	34.50	50.85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1A클래스	삼성	07-01-02	1,027	8.55	23.89	34.48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1C클래스	삼성	07-01-02	523	8.25	23.46	33.65	
유리스몰뷰티주식C	유리	04-08-16	811	0.14	33.07	33.26	57.83
한국네비게이터주식1classA	한국운용	05-12-20	545	3.28	29.02	33.24	48.38

\* 단위 : 억원, % 설정액 50억원 이상. 클래스펀드, 자펀드는 운용펀드와 모펀드의 설정액 기준.

‘삼성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종류형’ 펀드는 조선, 금융 업종의 비중이 높은 대형혼합펀드로 분류되고, 성장주 비중이 동일유형대비 높은 편이다.

그룹주 펀드들의 성과도 돋보였다. ‘SK그룹우량주플러스주식1-A1’는 SK그룹 상장주식에 절반이상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반기 정제마진 강세로 인해 연초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SK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전기가스업종의 편입도 10%를 상회하고 있다.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 펀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15대 그룹과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설정액 증가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3년 누적수익률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펀드가 220.16%를 기록하였는데, 2분기 주식시장 상승과 맞물려 보유 포트폴리오의 상승률이 매우 탄력적이었다. 중국관련 수혜주인 동양제철화학과 현대중공업의 비중과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관련 업종의 주식편입비율이 높다. 상반기 수탁고는 5,011억 증가한 9,463억원 수준으로 1조원 대에 바짝 다가섰다.

신영투신운용의 ‘신영마라톤주식(A형)’ 펀드는 저평가된 종목위주로 투자되는 가치형 펀드로서 연초대비 전기전자 업종 비중을 줄여나갔고, 대형가치주와 중소형가치주에 분산 투자한 펀드로서, 연초 1위를 지키다가 3월 들어 2위로 밀려났다. ‘신영밸류고배당주식1C1’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거의 동등비율로 분산투자된 가치주 펀드로서, 시가총액 비중에 따른 업종 편중보다는 고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연초 3년누적수익률 10위권내에 꾸준히 포함되었던 PCA투신운용의 ‘PCA베스트그룹주식1-4’ 펀드는 반기말 기준 20위권 마저 이탈하였고, IT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보유종목에 대한 비중조절이 없었지만, 6월말 삼성전자 등의 급반등세와 수탁고 4,300억원이 넘는 대형펀드라는 점에서 하반기 상위권 탈환이 기대되는 펀드이다.

운용사별로는 상위 10위권내의 6개 펀드가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로서, 연초 3개 펀드에 불과했지만, 반기말 3개 펀드가 추가편입되어 10위권내에 진입하였다. 11위에서 20위권 사이는 대한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의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펀드 3년 수익률 상위 펀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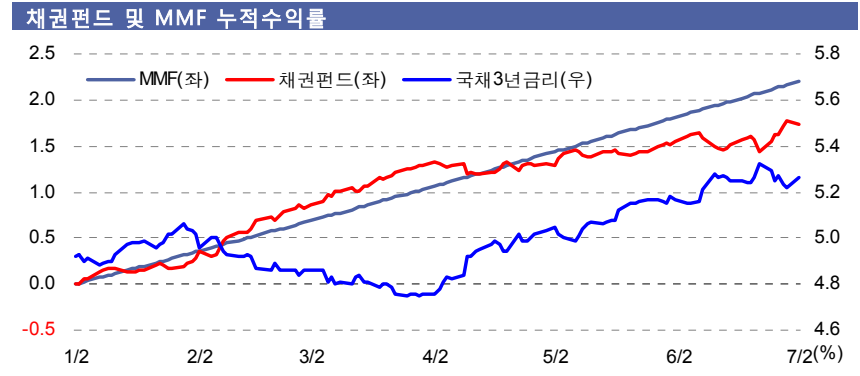
펀드명	운용사	실정일	설정액	1년	2년	3년	3년 등급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미래에셋(자)	2001-07-06	9,463	50.85	117.69	220.16	★★★★★
신영마라톤주식(A형)	신영	2002-04-25	2,268	48.50	101.66	207.99	★★★★★
미래에셋드림타겟주식형	미래에셋(자)	2003-11-03	385	52.96	104.72	194.91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 1	미래에셋(자)	2001-02-14	10,554	44.06	104.74	189.32	★★★★★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A-1ClassA	한국운용	2003-12-18	1,434	39.50	67.85	182.75	★★★★★
신영밸류고배당주식 1 C1	신영	2003-05-26	1,412	52.41	78.61	174.91	★★★★★
KTB글로벌스타주식 C	KTB	2001-07-25	136	41.92	122.67	174.26	★★★★★
미래에셋솔로몬성장주식 1	미래에셋(자)	2002-03-30	1,838	48.58	102.78	173.51	★★★★★
미래에셋솔로몬주식 1	미래에셋(자)	2002-12-03	5,144	45.02	97.37	169.20	★★★★★
미래에셋3억만들기기술로몬주식 1(C-A)	미래에셋(자)	2003-12-31	16,739	41.47	89.55	160.64	★★★★★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적립주식 1ClassA	한국운용	2003-12-31	413	47.32	100.28	160.27	★★★★★
대한FirstClass에이스주식ClassC1	대한	1999-03-29	2,254	41.13	112.66	159.23	★★★★★
마이다스액티브주식	마이다스	2001-03-06	172	44.12	109.75	157.43	★★★★★
세이고배당주식형	SEI에셋	2002-04-02	751	44.00	66.21	156.11	★★★★★
클래스원배당60주식 1종류C	대한	2003-05-23	2,634	46.07	92.85	149.14	★★★★★
가족사랑쟁적립주식K-1	대한	2003-12-29	371	45.03	98.93	147.58	★★★★★
대한FirstClass아인슈타인주식	대한	1999-02-01	74	43.32	108.34	146.71	-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A주식ClassA	한국운용	2002-01-29	118	42.82	88.92	145.59	★★★★★
골드플랜연금주식A-1	한국운용	2001-01-31	752	37.38	69.39	144.57	★★★★★
인베스트연금주식S-1	대한	2001-02-01	413	40.99	89.09	144.27	★★★★★

\* 단위 : 억원, %, 설정액 50억원 이상.

**KFR 채권펀드 운용성과**

**잔존만기 짧은 펀드의 성과  
상대적으로 양호**

채권펀드는 2007년 상반기 동안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힘든 6개월을 보냈다. 예상보다 앞당겨진 금리상승에 대부분의 채권펀드들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간 수익률과 월간 수익률로 종종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채권시장 약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모습이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4월부터 채권펀드의 누적수익률은 급격히 정체되기 시작해서 연초 이후 누적수익률로 따지면 MMF보다 못한 기록을 남기고 말았다. 채권펀드가 MMF와 다르게 완전시가평가를 적용하는 탓도 있지만, 단기금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장기 금리가 크게 출렁인 것도 부진한 채권펀드 수익률의 원인이다.

채권시장의 약세 속에서 채권펀드의 상반기 수익률은 1.74%, 연 3.51%를 기록했으며, 1년 수익률 4.04%이다. 반면 MMF 상반기 수익률은 2.20%, 연 4.44%를 기록하고, 1년 수익률은 4.33%이다. 채권시장 약세에 누적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모습이지만, 상하반기를 걸쳐서 각각 0.88%(연1.8%), 0.97%(연1.9%)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2005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MMF와의 수익률 격차도 크지 않다. 일부 운용사의 전체 채권유형 수익률은 동일 유형 수익률을 크게 앞서기도 했다.

**채권펀드 상반기 수익률 상위 펀드 20**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분기	2분기	상반기	1년
아이테일러채권 3C-1	아이	06-11-24	375	1.79	1.34	3.16	
아이프리미어채권 1ClassC3	아이	06-10-23	100	1.50	1.11	2.63	
동양High Plus채권 1클래스	동양	06-12-15	1	1.52	1.03	2.56	
대한FirstClass중기채권1호	대한	05-11-29	789	1.23	1.31	2.56	4.80
흥국멀티플레이채권 2	흥국	06-08-28	575	1.25	1.22	2.49	
푸르덴셜정통액티브채권 1 F	푸르덴셜	06-04-05	21	1.35	1.09	2.46	5.16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I	도이치	03-10-13	117	1.37	1.03	2.41	5.24
Tops국공채채권 1	SH	05-04-06	332	1.37	1.02	2.40	5.01
CJ굿초이스채권 1	CJ	04-11-24	129	1.18	1.18	2.37	4.79
흥국멀티플레이채권 3	흥국	06-12-04	138	1.17	1.19	2.37	
푸르덴셜정통액티브채권 1-I	푸르덴셜	06-04-11	51	1.30	1.05	2.36	4.96
안심국공채KM 1F	푸르덴셜	06-04-05	9	1.34	1.01	2.36	4.92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U	도이치	03-10-13	3	1.32	0.98	2.31	
대한단기채권혼합 1	대한	06-08-25	277	1.10	1.18	2.29	
BEST CHOICE단기채권 4	SH	01-12-18	705	1.10	1.14	2.25	4.51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P	도이치	06-10-10	1	1.28	0.93	2.22	
푸르덴셜정통액티브채권 1B	푸르덴셜	06-03-06	195	1.23	0.97	2.21	4.65
안심국공채KM 1 B	푸르덴셜	03-10-08	161	1.26	0.93	2.20	4.59
Tops국공채중기채권 1	SH	05-04-12	409	1.15	1.01	2.17	4.48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A	도이치	03-10-13	2,069	1.25	0.90	2.16	4.73

\* 단위 : 억원, % 설정액 100억원 이상. 클래스펀드, 자펀드는 운용펀드와 모펀드의 설정액 기준.

상반기 채권펀드들의 성과를 보면 잔존만기를 짧게 운용하는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3년 만기 금리를 중심으로 내려가면서 잔존만기가 긴 펀드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2/4분기 금리 상승 시에는 다시 3년 이상 만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급상승했고, 상승폭과 속도가 기존의 하락폭을 크게 뛰어넘었다.

이 때문에 잔존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회사채펀드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수익률 상위에 오른 채권펀드들의 잔존만기는 대체로 1년 미만에서 1.5년 정도로 운용되고 있다. 일부 채권펀드들은 채권 현물의 비중을 60%~70%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단기 유동성으로 보유하면서 채권 가치 하락의 위험에 대비한 운용을 하면서 수익률의 하락을 방어했다.

단연 돋보이는 펀드는 아이투신운용의 채권펀드이다. '아이테일러채권3C-1'펀드는 상반기 동안 3.16%(연 6.37%)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수익률 최상위에 올랐다. 이 펀드의 4월말 포트폴리오 기준 잔존만기는 채권현물 1.58년, 펀드 전체 0.97년이며, 100% 일반 회사채로 운용된다. 채권자산은 만기 1년에서 2년 사이 채권이 대부분이다. 보유 채권은 80% 이상이 신용등급 BBB-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BBB+, BBB0의 저등급 채권이다.

SH자산운용의 'Tops국공채채권1'과 'Tops국공채중기채권1'은 각각 2.38년, 2.51년의 잔존만기로 운용되는 펀드로 중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기 동안 수익률 상위에 오른 펀드로는 상당히 잔존만기가 긴 편에 속한다. 이 펀드들은 금리 스왑거래를 이용하여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방어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금리선물 매수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

채권펀드 3년 수익률 최상위는 도이치투신운용의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A' 펀드가 차지했다. 이 펀드는 운용규모로 공모채권펀드 중 네번째이며 운용기간도 4년이 다되어 가는 장기운용 펀드이다. 주요 편입 채권은 회사채와 카드 및 금융채이며 4월 말 기준으로 70%, 30%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펀드 전체의 잔존만기는 1.24년으로 짧은 편이며, 신용등급 BBB+ 이하의 저등급 채권 비중이 60% 정도로 15.27%의 3년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펀드 3년 수익률 상위 펀드 20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년	2년	3년	3년 등급
도이치코리아채권1-1ClassA	도이치	2003-10-13	2,069	4.73	9.31	15.27	★★★★★
템플턴골드채권B-1종류 A	템플턴	2001-04-04	330	4.09	8.08	13.41	★★★★★
스마트장기채권I-2	대한	2002-11-18	167	4.22	8.26	13.34	
클래스원장기채권S-1	대한	2003-11-10	835	4.30	8.16	13.19	★★★★★
BEST CHOICE단기채권 4	SH	2001-12-18	705	4.51	8.21	12.84	★★★★★
스마트단기채권S-9	대한	2003-12-29	117	4.46	8.40	12.58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채권A-1	한국운용	2003-01-09	332	3.09	6.87	11.82	★★★
안심국공채KM 1 B	푸르덴셜	2003-10-08	161	4.59	8.52	11.79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1(CLASS-A)	미래에셋(자)	2003-12-30	222	4.09	7.73	11.75	★★★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채권K-1	대한	2003-01-17	148	3.54	6.91	11.17	
개인연금공사채 7	한국운용	1999-08-18	241	3.31	6.90	11.11	★★
인베스트연금채권S-1	대한	2001-02-01	100	3.67	6.97	10.95	
뉴개인연금채권S-1	대한	2000-08-23	155	3.65	6.92	10.86	
신한국공채장기채권SH-1	신한BNPP	2002-02-27	1,400	4.17	7.34	10.85	★★★
삼성우량채권 1	삼성	2000-03-27	643	4.06	7.03	10.51	★★
KB장기주택마련채권 1	KB	2003-01-24	392	3.40	5.21	10.39	★
SmileAgain신중분리과세국공채A-6	한국운용	2003-03-19	116	3.66	6.92	10.21	
KB막강국공채적립	KB	2003-12-31	449	3.56	5.26	9.92	★
부자아빠퇴직채권 1	한국운용	2000-12-30	130	4.21	7.62	9.83	
슈로더코리아채권-자(E)	슈로더	2002-02-25	106	3.72	6.46	9.63	

\* 단위 : 억원, % 설정액 100억원 이상.

**KFR 해외시장 동향**

**글로벌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유동성 흐름으로  
세계 증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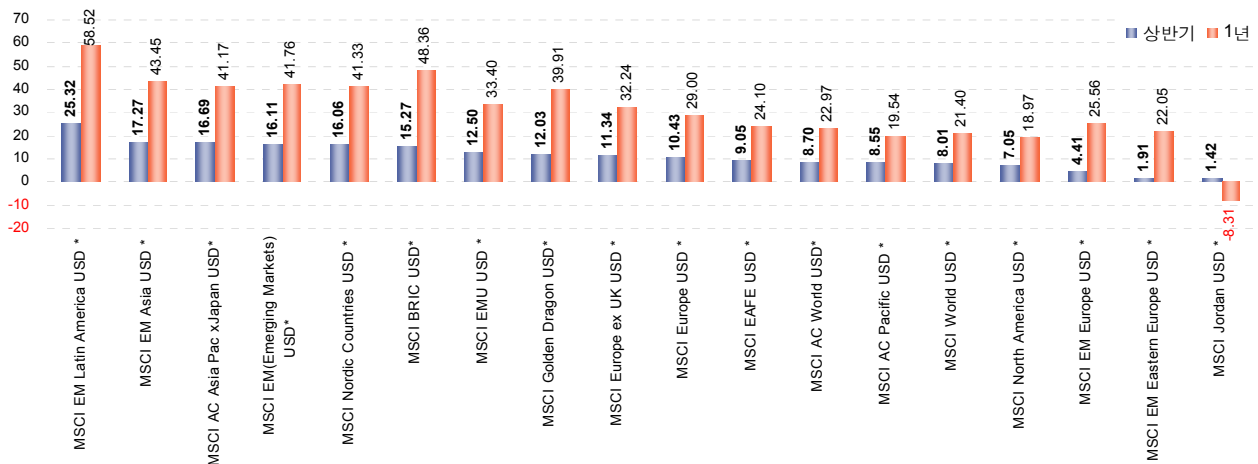
2007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상승세였다. 특히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에도 아시아, 유럽, 남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 독일, 브라질 등 장기 불황에 빠져 있던 국가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 미국경제의 부진 지속, 중국의 경기 과열로 인한 추가적인 긴축 조치, 국제 유가의 상승 등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2월 중국 증시의 급락, 일본의 엔 케리트레이드,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로 거의 모든 국가의 증시가 폭락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미국과 유럽의 대형 M&A의 등장은 증시를 강세장으로 이끌었다. 올 상반기 동안 MSCI World 지수가 8.01% 상승하였고, 지역적으로는 MSCI 이머징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동 기간 동안 25.32%, 개별 국가로는 파키스탄의 Karachi 100 지수가 37.17%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주요 국가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주가가 상승하였다.

**주요 해외 지표**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Q1	Q2	YTD(bp)
<b>국제금리</b>								
미국 풀금리	1.25	1.00	2.25	4.25	5.25	5.25	5.25	0
미국 장기국채	3.81	4.25	4.22	4.40	4.70	4.65	5.11	41
일본 재할인율	0.10	0.10	0.10	0.10	0.40	0.75	0.75	35
ECB RPP금리	2.75	2.00	2.00	2.25	3.50	3.75	4.00	50
영국 공정금리	4.00	3.75	4.75	4.50	5.00	5.25	5.50	50
EURIBOR	2.87	2.12	2.16	2.49	3.72	3.92	4.18	46
<b>국제 상품가격</b>								
미국 텍사스 중질유 (\$/배럴)	31	31	43	61	61.05	65.87	70.68	15.77
금 (달러/온스)	348	416	439	517	638.00	663.30	647.50	1.49
<b>환율동향</b>								
KRW/USD	1,197.00	1,192.60	1,035.10	1,011.60	926.00	940.90	923.80	-0.24
KRW/JPY	998.54	1,119.60	1,012.07	859.57	780.18	798.39	750.16	-3.85
USD/SDR	1.35	1.4860	1.5478	1.4293	1.5044	1.5102	1.5156	0.74
JPY/USD	119.33	106.95	103.76	117.45	119.01	117.85	123.20	3.52
USD/EUR	1.05	1.26	1.36	1.18	1.32	1.33	1.35	2.62
USD/GBP	1.61	1.7850	1.9184	1.7211	1.9600	1.9633	2.0027	2.1786

**해외주요지역 MSCI Index 수익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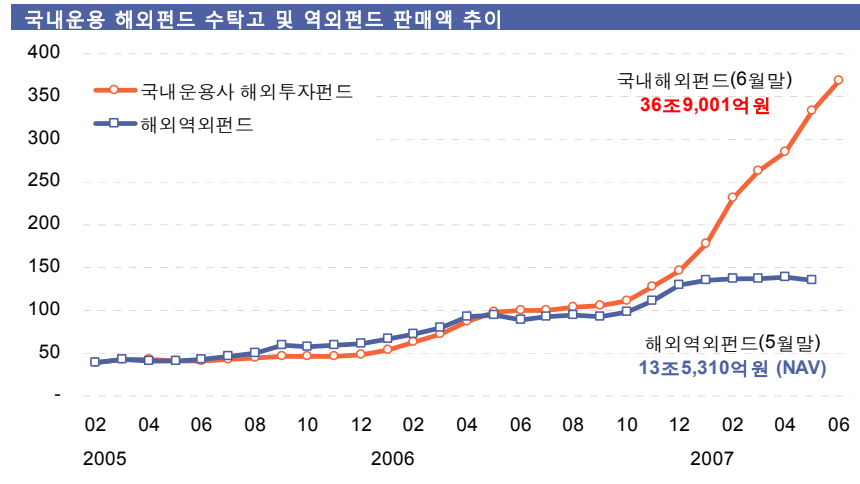
**KFR 해외펀드 수탁고**

**해외주식 직접투자펀드 수탁고  
가파른 증가**

국내 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해외 펀드와 해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는 역외 펀드의 판매액을 비교해 보면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해외 펀드의 수탁고가 역외 펀드의 수탁고를 상회하였다. 또한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차이는 4조 2천 억원으로 벌어졌고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약 20조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07년 6월 1일 시행되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시행에 따라 이미 올해 초부터 국내 펀드시장에 영향을 미쳐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반기 국내 운용사의 해외 주식펀드 수탁고는 약 17조 7천억원이 증가 하였다. 해외 주식펀드의 수탁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약 3조 1천억원이 증가하였고 뒤를 이어 신한 BNPP가 2조 5천억원이 증가하였다.

수탁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펀드는 삼성투신운용의 '삼성글로벌 Water주식종류자 1\_A' 펀드로 4월 중순에 설정되어 2개월 반동안 6,435억원 증가했으며, 동일 펀드의 다른 클래스를 모두 포함하면 9,272억원 증가했다. 그 다음은 프랭클린템플턴에서 운용하는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자(A)'로 6,321억원 증가했고, 신한BNPP의 '봉쥬르 유럽배당주식1'과 '봉쥬르 차이나주식2종류A'가 각각 5,873억원, 5,817억원 증가했다.



\* 단위 : 천억원

**KFR 국내운용 해외주식펀드 및 역외펀드 수익률**

**국내 운용 해외 투자펀드  
중국 및 아시아 투자 펀드 강세**

상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의 영향으로 해외리츠나 해외채권 투자 펀드 보다는 해외 주식 펀드의 수익률이 높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도 중국지역에 투자한 펀드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6개월 기준 수익률로 볼 때 상위 10개의 펀드가 모두 중국 및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로 약 23%~3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 펀드들 중 6개 펀드의 1년 수익률은 약 67%~80%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개별 펀드의 6개월 성과를 보면, 농협CS가 운용하는 '베트남아세안 플러스주식 1ClassA'와 '베트남 아세안 플러스주식 1CassC1'가 각각 35.26%와

34.78%로 1, 2위로 랭크 되었다. 이 펀드는 4월 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한국주식에 펀드 순자산 대비 22.83%, 싱가포르 주식에 21.88%, 말레이시아 주식에 21.31%, 베트남 상장주식에 10.05%, 그리고 나머지 11.50%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펀드는 올 상반기에 동남아시아와 한국 주식시장이 좋았던 만큼 수익률도 높게 나타났다.

중국, 홍콩, 인도, 한국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미래에셋맵스 자산운용의 '미래에셋맵스셀렉트Q주식 1 (clsass-A)' 펀드가 수익률 34.12%로 3위에 랭크 되었다. 동부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동부차이나주식1'이 28.23%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대한투신운용의 '대한FC 중국주식 해외재간접'과 '대한차이나포커스 해외 주식자'펀드도 각각 22%와 2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국내운용 해외펀드 상반기 수익률 상위 10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설정이후
베트남아세안플러스주식 1ClassA	농협CA	2006-12-20	821	5.47	18.39	35.26			34.58
베트남아세안플러스주식 1ClassC1	농협CA	2006-12-20	566	5.41	18.26	34.78			34.05
미래에셋맵스셀렉트Q주식 1(CLASS-A)	미래에셋(맵)	2006-04-17	243	2.89	24.76	34.12	57.00	69.56	48.93
동부차이나주식 1ClassA	동부	2006-05-08	443	4.37	20.90	28.24	66.42	77.59	63.39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주식 1ClassI	미래에셋(자)	2006-02-08	397	9.29	27.65	25.66	60.43	68.91	85.92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주식 1ClassA	미래에셋(자)	2005-10-31	2,750	9.23	27.44	25.22	59.60	67.73	107.68
미래에셋차이나솔로문법인주 1ClassA	미래에셋(자)	2005-11-16	226	9.85	26.25	25.10	60.64	70.37	103.52
미래에셋맵스차이나주식 1	미래에셋(맵)	2006-12-21	171	10.01	26.93	25.00			31.82
미래에셋차이나솔로문주식 1종류A	미래에셋(자)	2006-03-20	10,363	8.13	21.44	24.25	72.10	80.32	81.15
대한차이나포커스해외주식자	대한	2006-08-17	1,074	11.43	21.63	23.04	50.70		55.57

국내운용 해외펀드 1년 수익률 상위 10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설정이후
미래에셋차이나솔로문주식 1종류A	미래에셋(자)	2006-03-20	10,363	8.13	21.44	24.25	72.10	80.32	81.15
동부차이나주식 1ClassA	동부	2006-05-08	443	4.37	20.90	28.24	66.42	77.59	63.39
미래에셋차이나솔로문법인주 1ClassA	미래에셋(자)	2005-11-16	226	9.85	26.25	25.10	60.64	70.37	103.52
미래에셋맵스셀렉트Q주식 1(CLASS-A)	미래에셋(맵)	2006-04-17	243	2.89	24.76	34.12	57.00	69.56	48.93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주식 1ClassI	미래에셋(자)	2006-02-08	397	9.29	27.65	25.66	60.43	68.91	85.92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주식 1ClassA	미래에셋(자)	2005-10-31	2,750	9.23	27.44	25.22	59.60	67.73	107.68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 1	미래에셋(자)	2006-05-18	2,440	6.88	22.70	18.69	50.31	66.56	65.68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	미래에셋(자)	2006-05-18	2,702	6.85	22.65	18.57	49.90	66.40	65.24
봉주르차이나주식 1	신한BNPP	2004-11-29	11,655	11.07	21.96	16.42	57.98	63.78	116.51
봉주르차이나주식 2종류A	신한BNPP	2006-04-04	11,504	10.74	21.41	16.11	57.57	63.71	58.40

국내운용 해외주식펀드 투자지역별 수익률

지역구분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중국	-1.75	9.67	21.98	20.07	60.87	68.63	119.80
친디아	-0.51	6.45	21.79	17.75	49.03	65.17	78.73
인도	0.67	1.60	18.81	15.61	31.46	54.02	58.68
아시아	-0.82	2.53	10.71	15.30	30.36	35.89	59.55
브릭스	-0.73	6.78	14.32	15.24	38.69	49.39	92.46
이머징마켓	-0.59	3.07	11.85	14.32	30.46	40.95	20.55
베트남	-0.40	-2.41	-4.60	12.02	33.63	36.43	36.43
동유럽	1.30	7.41	5.60	11.10	17.36	17.36	17.36
글로벌	-0.44	0.19	6.56	7.90	15.88	20.99	35.04
일본	-0.73	1.17	3.84	6.69	12.69	15.74	10.69
유럽	-0.89	-1.19	4.42	6.12	13.83	21.33	36.54
미국	-0.91	0.03	6.52	4.76	4.76	4.76	4.76

주1) 한국펀드평가 해외지역분류. 해외주식직접투자펀드, 해외주식FOF펀드의 순자산 가중평균 수익률. 단위: %  
 주2) 1개월 이상 운용, 설정액 50억원 이상 펀드만을 대상으로 함.

해외투자 역외펀드  
 남미와 아시아 투자 펀드  
 수익률 두드러져

한편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역외 펀드는 지역별로 볼 때 남미지역 펀드가 25.20%로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태국 21.18%, 중국 19.24%, 대중국지역 펀드가 18.79%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선 일본지역은 6개월 수익률이 -1.41%수익률로 유일하게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6개월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역외 펀드 중 글로벌지역 투자펀드인 '메릴린치 월드 광업주' 펀드가 31.96%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에 투자하는 '템플턴 아시아 성장 A dis'펀드가 31.25%, '피델리티 동남아시아' 펀드가 28.22%의 성과를 냈다.

남미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슈로더 라틴 아메리카 AAcc', '메릴린치 라틴 아메리카', '템플턴 라틴 아메리카 Adis' 펀드가 6개월 수익률 상위에 올라있다. 특정 국가 투자 펀드로는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펀드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는데, '피델리티 말레이시아'펀드가 30.53%, 스페인에 투자하는 '피델리티 이베리아' 펀드가 27.69%, '피델리티 싱가포르'가 24.81%의 수익률을 올렸다.

해외 역외펀드 상반기 수익률 상위 10

펀드명	운용사	투자지역	설정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메릴린치 월드 광업주	블랙록메릴린치	글로벌	24/03/1997	2.81	17.65	31.96	50.71	238.77	425.64
템플턴 아시아 성장 A dis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태평양 일본제외	01/07/1991	9.13	27.50	31.25	63.83	160.85	269.37
피델리티 말레이시아	피델리티	말레이시아	28/09/1990	-1.62	9.27	30.53	71.68	98.23	132.39
피델리티 동남아시아	피델리티	아시아태평양 일본제외	28/09/1990	6.84	23.88	28.22	61.65	177.47	226.30
메릴린치 뉴에너지	블랙록메릴린치	글로벌	06/04/2001	1.78	12.57	28.02	38.97	129.27	150.67
피델리티 이베리아	피델리티	스페인	28/09/1990	0.73	13.53	27.69	62.58	178.59	308.81
슈로더 라틴 아메리카 AAcc	슈로더	남미	17/01/2000	2.07	20.29	27.02	67.41	302.72	506.51
메릴린치 라틴 아메리카	블랙록메릴린치	남미	08/01/1997	1.67	19.69	25.98	63.89	315.01	525.84
피델리티 싱가포르	피델리티	싱가포르	28/09/1990	0.46	10.31	24.81	62.00	150.16	212.55
템플턴 라틴 아메리카 A dis	프랭클린템플턴	남미	30/09/1996	2.56	19.24	24.58	67.13	284.97	513.11

해외 역외펀드 1년 수익률 상위 10

펀드명	운용사	투자지역	설정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피델리티	중국	15/08/2003	11.06	24.14	20.54	74.24	201.89	
HSBC 중국 주식형	HSBC	중국	30/06/1992	10.33	23.35	17.94	72.14	175.32	329.89
피델리티 말레이시아	피델리티	말레이시아	28/09/1990	-1.62	9.27	30.53	71.68	98.23	132.39
슈로더 라틴 아메리카 A Acc	슈로더	남미	17/01/2000	2.07	20.29	27.02	67.41	302.72	506.51
템플턴 라틴 아메리카 A dis	프랭클린템플턴	남미	30/09/1996	2.56	19.24	24.58	67.13	284.97	513.11
피델리티 인디아포커스 달러	피델리티	인도	23/08/2004	3.70	23.55	20.56	66.29		
메릴린치 라틴 아메리카	블랙록메릴린치	남미	08/01/1997	1.67	19.69	25.98	63.89	315.01	525.84
템플턴 아시아 성장 A dis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태평양 일본제외	01/07/1991	9.13	27.50	31.25	63.83	160.85	269.37
피델리티 이베리아	피델리티	스페인	28/09/1990	0.73	13.53	27.69	62.58	178.59	308.81
피델리티 싱가포르	피델리티	싱가포르	28/09/1990	0.46	10.31	24.81	62.00	150.16	212.55

해외 역외펀드 투자지역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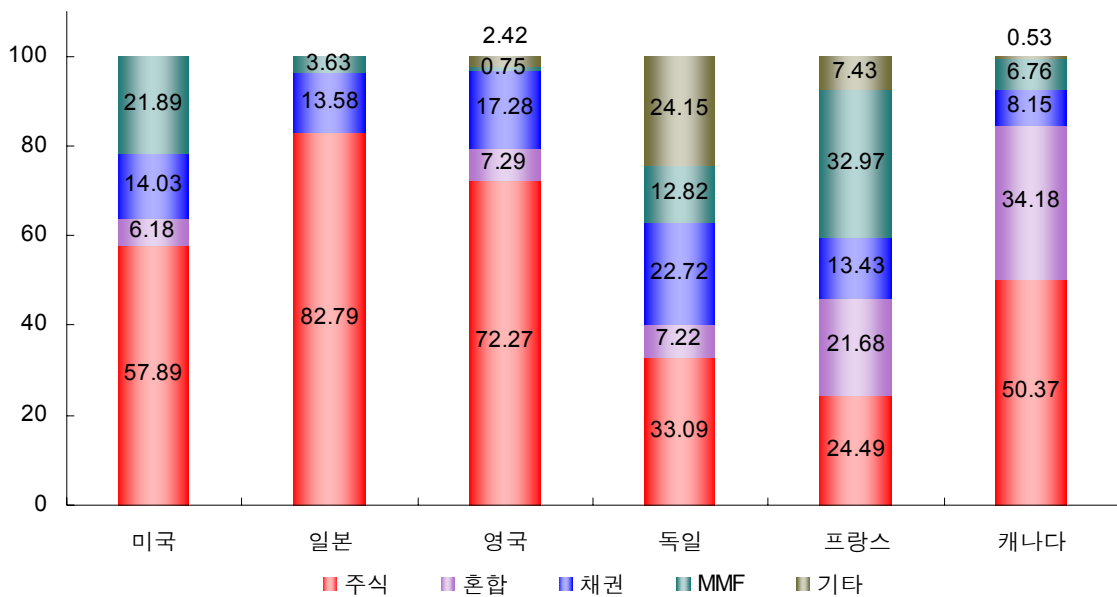
지역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년초이후
남미	0.03	2.01	19.92	25.20	63.64	297.57	25.20
태국	0.70	5.33	17.96	21.18	32.26	56.42	21.18
중국	-0.83	10.70	23.75	19.24	73.19	188.61	19.24
대중국	-0.16	9.37	18.37	18.79	50.44	123.95	18.79
아시아태평양 일본제외	-0.29	4.41	14.00	16.71	40.04	112.65	16.71
인도	1.52	1.97	21.78	16.56	59.12	222.20	16.56
아시아태평양	0.03	3.33	11.58	14.53	30.86	97.31	14.53
유럽 영국제외	0.28	-0.85	8.40	13.13	34.48	95.06	13.13
홍콩	-0.67	3.58	10.06	12.40	35.68	91.56	12.40
이탈리아	-0.70	-2.54	3.69	10.64	33.56	127.16	10.64
유럽	0.44	-0.38	6.39	10.30	27.17	83.51	10.30
글로벌 이머징마켓	-0.16	0.99	6.64	8.88	26.27	101.41	8.88
유럽 이머징마켓	1.17	3.89	6.09	8.22	31.82	132.63	8.22
글로벌	0.03	-0.55	5.17	7.42	18.89	54.96	7.42
영국	0.45	0.13	4.74	6.82	20.99	59.33	6.82
북미	-0.46	-1.45	6.57	6.80	19.62	45.95	6.80
유로랜드	0.57	-0.35	3.56	6.06	16.86	46.35	6.06
미국	-0.01	-1.01	2.94	4.74	12.05	26.78	4.74
일본	0.55	-0.08	-2.12	-1.41	-3.26	16.40	-1.41

주1) 국내에서 판매중인 역외주식펀드 가운데, 해당투자지역 펀드수가 2개 이상인 지역  
 주2) S&P펀드 서비스의 유형을 적용하여 단순평균 수익률을 계산. 단위 : 미달러 수익률(%)



KFR 주요 국가 펀드시장 유형별 수탁고 현황

		미국 mil. USD	일본 100 mil. JPY	영국 mil. GBP	독일 mil. EUR	프랑스 mil. EUR	캐나다 mil. CAD
Equity	잔고	6,597,900	649,931	339,950	239,285	364,621	358,578
	비중, %	57.89	82.79	72.27	33.09	24.49	50.37
	월간변화율	3.63	4.06	3.03	3.28	2.21	2.10
Balanced	잔고	704,400	-	34,283	52,228	322,720	243,367
	비중, %	6.18	-	7.29	7.22	21.68	34.18
	월간변화율	2.44	-	2.57	2.66	1.75	1.96
Bond	잔고	1,599,100	106,569	81,286	164,305	199,955	58,039
	비중, %	14.03	13.58	17.28	22.72	13.43	8.15
	월간변화율	0.99	0.64	-0.33	-0.09	1.02	-0.89
MMF	잔고	2,495,100	28,499	3,515	92,744	490,815	48,151
	비중, %	21.89	3.63	0.75	12.82	32.97	6.76
	월간변화율	2.71	1.52	3.14	2.66	1.96	1.22
Other	잔고	-	-	11,361	174,634	110,586	3,782
	비중, %	-	-	2.42	24.15	7.43	0.53
	월간변화율	-	-	2.65	1.06	4.08	2.28
Total	잔고	11,396,500	784,999	470,395	723,195	1,488,696	711,916
	비중,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월간변화율	2.97	3.48	2.39	1.84	2.00	1.74



**KFR Report - 펀드 성과 지속성**

**펀드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 - 성과 지속성  
'Performance Consistency'**

수 많은 펀드들 중 몇 개를 골라서 투자해야 하는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과거의 수익률로만 펀드를 선택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현재 공시되는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결과일 뿐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펀드 선진국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만들어져서 실제 투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펀드평가사인 모닝스타는 펀드의 성과에 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을 돕고 있다. 별을 많이 받은 펀드의 성과가 앞으로도 훌륭한 성적을 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모닝스타의 스타등급은 이미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가 별 4개 혹은 별 5개의 등급을 받기 원하며, 투자자들은 별 4개 이상을 부여 받은 펀드에 높은 신뢰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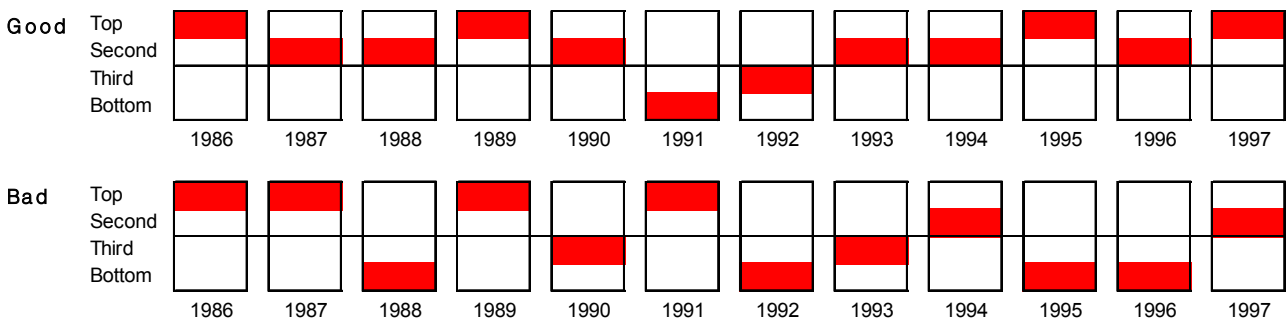
모닝스타, 리퍼, 그리고 과거 S&P 등 대표적인 펀드평가기관들이 부여하는 등급은 주로 상대적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산출된 값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펀드의 기간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평가 지표 외에, 펀드의 성과가 얼마나 잘 지속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리퍼의 경우는 펀드의 특성에 따라 4가지의 등급 (Total Return:수익성, Consistent Return:지속성, Preservation:자산보존성, Expense:비용)을 따로 부여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맞는 펀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영국의 Financial Express는 펀드의 알파와 변동성, 성과지속성을 결합하여 크라운 등급을 부여한다.

위험 조정수익률은 그 자체로도 펀드의 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단 하나의 지표로 펀드의 수익률과 성과 지속성을 어렵게 짐작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 기준이 된다. 그러나 수익률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펀드이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펀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간단한 아이디어**

인덱스 펀드로 유명한 뱅가드 그룹의 설립자 존 보글은 펀드의 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각 기간별 수익률의 4분위 순위 차트를 이용하여, 상위 1,2분위에 포함된 횟수와, 하위 4분위에 포함된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그림은 실제 펀드들의 12년간 동일유형 내 사분위 순위를 표시한 것이다. 존 보글이 말하는 좋은 펀드의 기준은 12년 중 6년 이상 1,2사분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낮은 4사분위에는 1~2번 정도만 포함되어야 한다. 4사분위에 5번 이상 포함된 펀드는 과감히 '나쁜 펀드'로 단정지을 수 있다. 이 평가 방법은 비슷한 위험을 부담하는 같은 유형 내에서만 가능하다.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펀드들을 따로 모아놓고 측정해야 펀드의 운용성과가 수익률의 상대 순위에 무리 없이 반영된다.



성과 지속성 평가법의 실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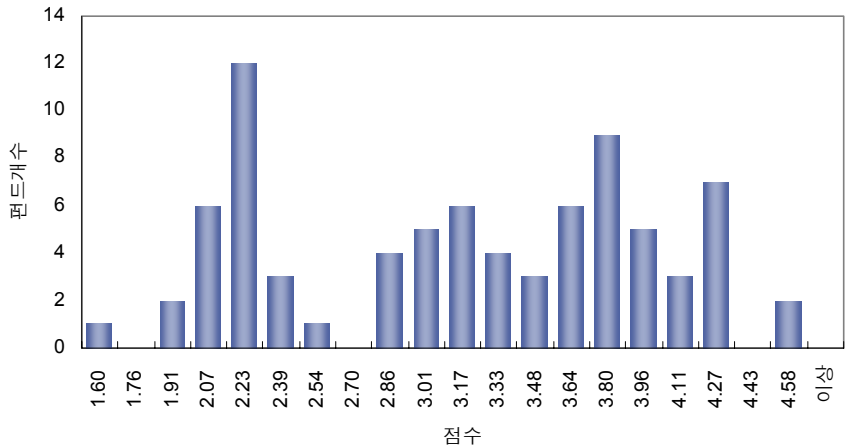
위와 같은 방법을 우리나라의 펀드들에 그대로 대입해서 쓰기는 조심스럽다. 우선 펀드들의 운용기간이 짧아서 수년 이상 운용된 펀드만 선택해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수가 너무 적다. 대신 존 보글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연간수익률 대신 월간수익률을 사용하여 대상 기간을 줄이고 펀드의 수를 늘렸다. 분석 대상은 현재 100억원 이상이며 평가기간 동안의 평균 설정잔액이 50억원 이상인 펀드들이다.

분석 대상 펀드의 개수는 79개이며 이 펀드들 내에서 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4분위 대신 조정된 6가지 순위의 범위를 만들어서 순위를 세분화 했다. 점수 부여의 원칙은 높은 순위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상위 50%이상인 기간이 전체 기간의 50% 이상일 때, 70% 이상일 때 각각의 가중치를 주었다. 그리고 하위 30% 이하인 기간이 전체 기간의 1/3을 넘을 때는 패널티를 부여하며, 높은 가중치 조건에서 배제된다. 가중치와 패널티의 비율은 성과 점수가 적절히 차별화되게 조정한 임의의 값이다. 마지막으로 순위의 변동성이 클 때는 전체 점수를 변동성만큼 할인해서 순위 변동이 큰 펀드는 낮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각 기간별 가중치는 동일하다.

점수	1	2	3	4	5	6
백분위 순위 범위	~10%	10%~30%	30%~50%	50%~70%	70%~90%	90%~

가중치조건	%순위 30% 이하기간이 전체기간의 1/3이상	조건없음	%순위 50% 이상기간이 전체기간의 50%이상	%순위 50% 이상기간이 전체기간의 70%이상
가중치	0.8	1	1.2	1.4
펀드 수	25	14	39	1

지속성 점수대별 펀드 분포



성과 지속성 등급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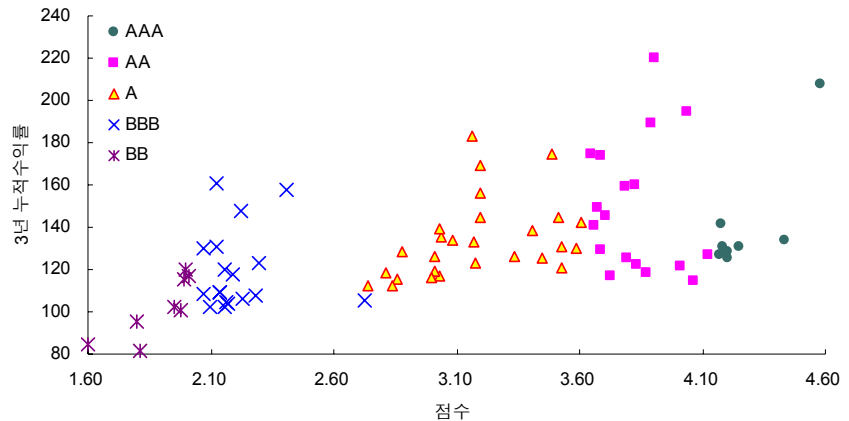
산출된 점수를 다시 순서대로 정렬해서 다섯 단계의 등급을 부여했다. 등급 부여 비율은 한국펀드평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스타등급 부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최상위로부터 차례대로 10%, 22.5%, 35%, 22.5%, 10%로 나누어 각각 AAA, AA, A, BBB, BB로 표시했다.

위와 같은 지속성 등급은 기존의 위험조정 수익률 등급과는 차이가 있다. 위험조정수익률은 펀드의 위험요인보다 수익률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속성 등급은 위험 요인에 더 높은 비중이 둘 수 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최고 점수에 제한이 있고, 반대로 수익률이 낮은 펀드에도 최저 점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일종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물론 지속성 등급과 같은 기간 수익률과는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정작 높은 지속성 등급을 받은 펀드들의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며 같은 등급 내의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크다. 지속성 등급이 높은 펀드는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고수익을 기대한 투자자에게 알맞은 펀드는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성과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지속성 등급이 높은 펀드가 적합할 것이다.

지속성 점수와 같은 기간 3년 누적 수익률의 분포



등급별 펀드의 특성

지속성 등급의 특성은 높은 등급을 받은 펀드들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높은 등급을 받은 펀드의 상당수가 인덱스 펀드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일부 대형 성장형 펀드도 포함되어 있다. 이 펀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형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유지하였으며 순위 변동이 크지 않았던 펀드들로 지난 3년간 안정적인 운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성 등급 상위 펀드

펀드명	운용사	설정액	3년수익률	등급
신영마라톤주식(A형)	신영	2,268	207.99	AAA
유리인덱스200주식파생상품 B	유리	263	134.05	AAA
푸르덴셜인덱스FREE파생상품 1A	푸르덴셜	122	130.66	AAA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A1	우리CS	393	125.41	AAA
PCA베스트그로스주식+ 4	PCA	4,311	128.22	AAA
삼성인덱스프리미엄주식파생상품 A	삼성	663	130.67	AAA
한국부자아빠인덱스파생상품	한국운용	125	141.57	AAA
삼성인덱스종류형알파파생상품 1_A	삼성	817	127.30	AAA

기준일: 2007.07.02. 단위: 억원, %

반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 성과가 쉽게 변동하는 중소형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들이 낮은 지속성 등급을 받았다. 그 중에는 3년 누적수익률이 유형수익률을 훌쩍 넘어서는 펀드도 있지만 매일 유형 내 순위가 급변하면서 높은 지속성 등급을 받지 못한 펀드도 있다.

등급별 펀드 특성

등급	평균설정액	평균수익률	평균변동성	평균베타	평균결정계수
AAA	1,120	140.73	5.17	1.02	95.82
AA	1,854	149.05	5.46	1.06	93.18
A	1,930	133.96	5.39	1.03	90.17
BBB	1,542	119.25	5.34	1.04	91.42
BB	492	102.20	4.53	0.84	84.73

하지만 대체로 낮은 등급의 펀드들은 대체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운용스타일에 따라 유형 내 순위가 급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펀드도 있지만,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서도 효과적인 운용을 하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한 펀드도 있다.

등급별로 설정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펀드들의 성과가 좋아서 투자자 증가한 사후적인 효과인지, 큰 규모로 인한 안정적인 운용으로 인해 높은 등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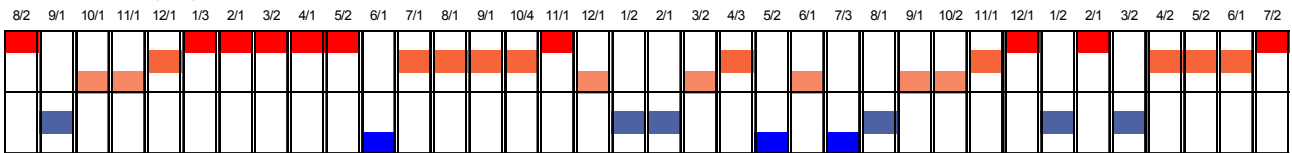
받았는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통계량도 확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등급이 낮을수록 변동성과 베타가 작고 결정계수 또한 낮다. 이는 높은 등급의 펀드에 비해 시장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과 지속성 평가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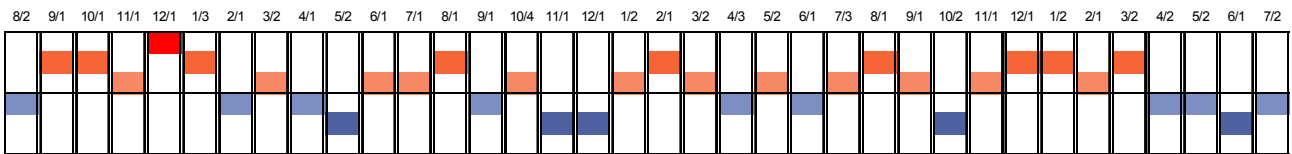
투자자들이 펀드의 지속성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그나마 각 펀드 평가사들이 자체적인 운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 덕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펀드가 장기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용성과 또한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성과지속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간단하게 개별 펀드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 차트는 앞서 정의한 6개의 조정된 백분위 순위 구간으로 개별 펀드의 유형 내 월별수익률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신영마라톤주식(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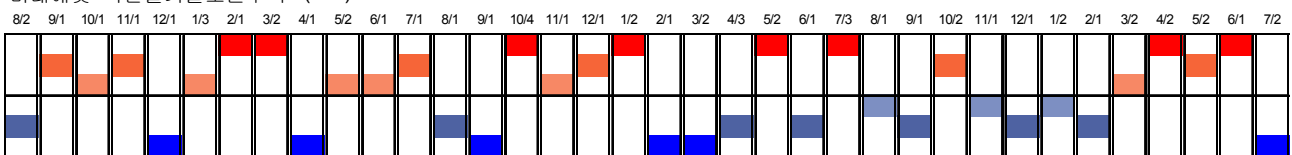
유리인덱스200주식파생상품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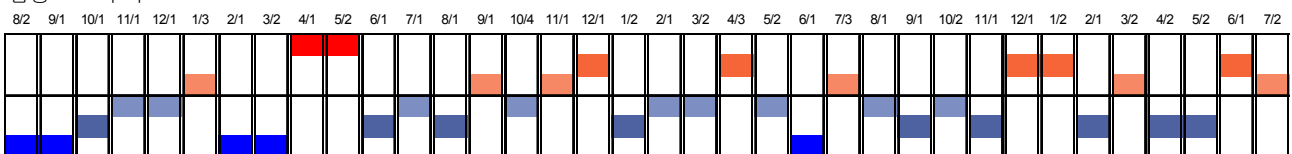
위 두 개의 펀드는 앞서 소개한 지속성 평가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은 펀드들이다. '신영마라톤주식(A형)'은 최하위로 떨어지는 적도 있지만 상위지속 기간이 길고 최상위에 속한 기간이 많아 지속성 점수도 높고 누적수익률도 높다. '유리인덱스200주식파생상품 B'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중상위 정도의 순위를 유지한 기간이 길고 순위 변동이 크지 않아 높은 등급을 받았다.

아래는 낮은 지속성 점수를 기록한 펀드다 그러나 '미래에셋3억만들기술로몬주식1(C-A)'는 스타등급 별 네개, '삼성Value주식1'은 별 하나로 정반대의 운용결과를 기록했다. 전자는 동일유형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해서 높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위험을 많이 부담했으며, 후자는 가치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운용되었지만 3년 동안 운용스타일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유형 내 50% 이하에 든 횟수가 많아 낮은 점수를 부여 받았다.

미래에셋3억만들기술로몬주식 1(C-A)



삼성Value주식 1



펀드 등급을 이용한 펀드 선택

펀드를 선택할 때, 수익성, 안정성, 운용사의 운용철학 등을 꼭꼭 챙겨 보라는 전문가들의 말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펀드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운용등급과 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순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펀드의 대략적인 성격을 알아내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주식펀드 내에서 세부적인 유형의 분류가 완비되지 않았고, 동일 유형의 펀드 수와 운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속성 등급의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대신 펀드평가사들은 개별펀드의 월별 수익률 순위를 사분위, 십분위, 백분위 등으로 표시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존 보글이 제시한 펀드 지속성 평가법을 활용한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에 알맞은 펀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를 선택할 때 펀드의 위험대비 수익률을 고려한 기존의 등급과, 펀드의 유형 내 순위 변화를 고려한 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펀드를 고를 수 있다.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꾀하는 투자자라면 성과 지속성이 높은 펀드를 고르되, 수익률 등급 중간이상의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높은 수익률 등급의 펀드로 우선 선택하고, 성과 지속성이 중간 정도 되면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타등급 상위 펀드들의 성과 지속성

펀드명	스타등급	지속성	3년수익률
신영마라톤주식(A형)	★★★★★	AAA	207.99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	AA	220.16
미래에셋퀀텀타겟주식형	★★★★★	AA	194.9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 1	★★★★★	AA	189.32
미래에셋솔로몬성장주식 1	★★★★★	AA	173.51
KTB글로벌스타주식 C	★★★★★	AA	174.26
대한FirstClass에이스주식ClassC1	★★★★★	AA	159.23
미래에셋솔로몬주식 1	★★★★★	A	169.20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적립주식 1ClassA	★★★★★	AA	160.27
미래에셋3억만들기술로몬주식 1(C-A)	★★★★★	BBB	160.64
마이다스액티브주식	★★★★★	BBB	157.43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A- 1ClassA	★★★★★	A	182.75
신영밸류고배당주식 1 C1	★★★★★	A	174.91
가족사랑장적립주식K- 1	★★★★★	BBB	147.58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A주식ClassA	★★★★★	AA	145.59
인베스트연금주식S- 1	★★★★★	A	144.27
클래스원배당60주식 1종류C	★★★★★	AA	149.14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A1주식A- 1	★★★★★	A	142.24
세이고배당주식형	★★★★★	A	156.11
한국부자아빠인덱스파생상품	★★★★★	AAA	141.57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주식K- 1	★★★★★	A	139.55
KB스타적립주식 1	★★★★★	A	138.12
푸르덴셜Value포커스주식 1B	★★★★★	AA	140.50
골드플랜연금주식A- 1	★★★★★	A	144.57
클래스원블루칩바스켓주식V- 1	★★★★★	A	135.27
알파그로스주식형(CLASS-C)	★★★★★	A	133.42
유리인덱스200주식파생상품 B	★★★★★	AAA	134.05
PCA베스트그로스주식A1클래스A	★★★★★	A	134.04
미래에셋맵스KB플러스주식 1(CLASS-A)	★★★★★	BBB	130.96
퍼펙트U성장주식 1	★★★★★	AA	127.06
푸르덴셜나폴레옹주식 2- 6	★★★★★	A	130.37
PCA베스트그로스주식A- 4	★★★★★	AAA	128.22
푸르덴셜나폴레옹주식 2- 2	★★★★★	BBB	123.09
현대HR30주식 1	★★★★★	A	123.45
푸르덴셜나폴레옹주식 2- 11	★★★★★	A	130.88
삼성인덱스프리미엄주식파생상품 A	★★★★★	AAA	130.67
푸르덴셜나폴레옹정통액티브FREE주식 1A 1	★★★★★	A	119.56
푸르덴셜인덱스FREE파생상품 1A	★★★★★	AAA	130.66

기준일 : 2007.07.02. 단위 : %. 36개월 월간 수익률 기준.

# Korea Fund Ratings 2007 Fund Watch [상반기]

한국펀드평가 펀드평가팀

- 본 보고서는 한국펀드평가(주)에서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허가 없이 무단복제, 무단재생, 제3의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간접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 공시자료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한국펀드평가의 자료검증 범위 및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제공 목적 이외의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